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해명</h1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<b>담 당 자</b>	민 인 영 사무관 (02-2100-2663)	
	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 서 규 영(02-3145-7690)		오 상 완 팀 장 (02-3145-7621)	

**제 목 : 살바싸움 하다 피해 키운 금융당국**  
**[한국경제, 2.14일자 가판에 대한 설명]**

**1. 기사내용**

- 한국경제는 ‘20.2.14일자 가판 「살바싸움 하다 피해 키운 금융당국」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책임소재 놓고 금감원과 신경전”, “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협화음이 나타나면서 라임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.”
  - “그동안의 정책 실패가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위가 ‘물타기’하려는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.”라고 보도

**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**

-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환·환매가 연기된 일부 사모펀드 등과 관련하여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수시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.
- 기사 내용과 같은 “살바싸움”, “불협화음”, “책임회피”, “물타기”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,
  -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송지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